

여성 대상 범죄보도에 대한 프레이밍 연구

최현주*

〈국문초록〉

일반적으로 뉴스는 외부에 존재하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인지되어왔다. 그러나 뉴스 보도에 관한 많은 선행 연구들은, 뉴스가 외부세계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뉴스 조직의 규범과 제작자들에게 내면화된 이데올로기에 따라 특정한 현실을 구성해 낸 것임을 밝히고 있다. 젠더의 관점에서 이를 적용하면, 뉴스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구성되어졌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연쇄살인과 같은 범죄 뉴스에서조차 남성중심적인 이데올로기가 내포되어 있을 것 인지에 대하여 고찰해보았다. 관련문헌 고찰을 통해 여성대상 범죄뉴스에 젠더편향적인 시선이 내재해 있는지, 어떠한 장치들을 통해 남성우월주의적 이데올로기를 발현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처럼 뉴스에 내재된 젠더 담론을 분석해 내는 방법으로 프레이밍 연구가 갖는 특징점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여성 대상 범죄뉴스에 대한 기존 논의들을 고찰한 결과, 뉴스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에 따라 성차별적인 장치를 통해 남성중심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범죄보도, 젠더, 뉴스 프레임, 뉴스,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 계명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젠더와 문화』 제2권 1호(2009): pp.39-58

© 2009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1. 서론

일반적으로 뉴스는 외부에 존재하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인지되어왔다. 그러나 뉴스 보도에 관한 많은 선행 연구들은, 뉴스가 외부세계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뉴스 조직의 규범과 제작자들에게 내면화된 이데올로기에 따라 특정한 현실을 구성해 낸 것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뉴스가 주류 권력집단의 이해 관계를 반영한다는 것인데, 젠더의 관점에서 보면 가부장주의가 뉴스에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김훈순, 2004).

실제로 뉴스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뉴스가 젠더편향적임을 밝히고 있다. 일반적으로 뉴스는 공적영역에 속한 모든 활동들과 관련되어 있는데, 공적 영역은 주로 남성들의 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뉴스는 남성에게 관해서 남성의 시각을 통해서 본 것으로 남성적 담론이라 할 수 있다(Fiske, 1994; Hartley, 1982; 김훈순, 2000에서 재인용). 국내에서는 김훈순(1997)이 뉴스 앵커, 뉴스 취재기자, 뉴스원과 관련된 뉴스보도 형식에서 그리고 보도하는 뉴스내용에 있어서 남녀간에 차이가 있음을 밝혀내었다. 뉴스 프로그램에서 남성앵커는 주도적인 역할을, 여성앵커는 단순전달 수준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앵커는 남성앵커에 비해 다루는 뉴스폭지의 수도 적을 뿐만 아니라 남성앵커가 정치, 경제, 국방 등과 같은 하드 뉴스(hard news)를 다루는 데 비해 여성앵커는 건강, 환경, 기타 인간적 흥미를 다루는 소프트 뉴스(soft news)를 주로 다룬다는 것이다. 또한 여성에 관한 뉴스보도는 신문과 방송 모두에서 양적으로 매우 적게 취급되고 있고 여성이 관련된 뉴스는 사소한 문제로 취급되거나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

는 남녀에게 주어진 성역할의 틀이 뉴스의 장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은 뉴스 그 자체의 형식과 내용이 젠더편향적임을 말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연쇄살인과 같은 범죄 뉴스에서조차 남성중심적인 이데올로기가 내포되어 있는가? 올해 초 경기서남부에서 발생한 일련의 실종자들을 연쇄살인한 강호순사건, 94년 이른바 ‘살인 공장’까지 차려놓고 사업가 부부와 조직원 등 5명을 살해한 지존파사건¹⁾, 2003년에서 2004년까지 노인과 부녀자들 20여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유영철사건²⁾ 등과 같이 극악무도한 사건들에 대한 보도에서도 젠더편향적인 시선이 내재해 있을까? 이를 살펴보기 위해, 여성대상 범죄뉴스 보도를 분석한 관련문헌 고찰을 통해 여성대상 범죄뉴스에 젠더편향적인 시선이 내재해 있는지, 어떠한 장치들을 통해 남성우월주의적 이데올로기를 발현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처럼 뉴스에 내재된 젠더 담론을 분석해 내는 방법으로 프레이밍 연구가 갖는 특·장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여성 관련 범죄보도에 나타난 특성

여성관련 범죄뉴스에 대한 여러 선행연구들은 여성에 대한 뉴스의 담론이 특정한 틀을 형성하고 있음을 드러내었는데, 특히 남녀 간에 뚜렷한 프레이밍의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먼저, 가정폭력에 대한 보도

1) ‘잘난 사람들이 싫고, 사람을 더 못 죽인 것인 한’이라고 할 정도로 세상에 대한 극심한 복수심을 드러내었다.

2) 2004년 당시 유영철의 인터뷰 내용: “여성들이 함부로 몸을 놀리거나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 부유층들도 좀 각성했으면 합니다”(SBS, 2009.1.30, ‘지존파에서 유영철까지...희대의 연쇄살인마’)부유층과 여성에 대한 적대감을 범행이유로 밝혀 우리 사회에 대한 증오를 드러내었다.

를 분석한 연구들에 의하면, 뉴스가 남성중심적 시각에서 남성 가해자를 옹호하고 오히려 여성 피해자를 비난하는 양상이 있음을 알 수 있다(Carll, 1999; Finn, 1990; Meyers, 1997; Pagelow, 1981). 페이지로(Pagelow, 1981)는 가정폭력을 보도하는 경우에 때리는 남자와 맞는 여자 모두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가부장적 신화에 근거하여 가해자인 남성의 심리적 비정상성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도구로, 피해자인 여성의 비정상성은 도덕적 비난의 대상으로 제시된다고 밝혔다. 핀(Finn, 1990)은 또한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남성은 외부 자극이나 스트레스의 희생물로 규정되어 처벌보다는 동정을 베풀어야 할 대상으로 의미화됨을 지적하였다.

반면에 메이어즈(Meyers)는 남편에 의해 살해당한 아내가 뉴스에서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분석한 결과, 아내가 자신의 죽음 뿐 아니라, 남편의 과멸까지도 자초한 것으로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하였다. 뉴스는 살해당한 아내가 고집이 세고 사나워 남편을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들어 마침내 살인에 이르게 했다고 프레이밍한 것이다. 칼(Carll, 1999) 또한 가정폭력에 대한 신문의 접근방식이 가해자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남편이 부인에게 총을 쏜 사건은 헤드라인에 ‘분노’나 ‘위협’ 등 범죄의 이유를 설명하는 단어를 사용하여 보도하지만, 부인이 남편을 총으로 쏜 경우는 ‘총을 든 무서운 마누라(Blasted spouse with shotgun)’라는 헤드라인 등과 같이 단지 충격적인 범죄의 발생 사실만 말할 뿐 이유는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가정폭력에 대한 미디어 담론에 이중적인 성 규범이 내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가정의 테두리를 벗어난 범죄에 대한 보도에서도 남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1986년에 발생한 미국의 ‘Preppy Murder’에 대한 보도를 연구한 애클랜드(Acland, 1991) 연구에 의하면 백인 중산층 남학생이

백인 중산층 여대생을 강간 살해한 이 사건에서, 미디어는 가해자인 남성은 수줍고 순진하며 성실하고 유망하고 잘생긴 남성으로, 살해당한 여성은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성욕망을 가진, 즉 일탈적 성욕을 가진 여성으로 이미지화함으로써, 가해자인 남성이 오히려 성적으로 공격적인 여성에 의한 희생자로 묘사되었다는 것이다(유선영, 1999에서 재인용). 안토노폴로(Antonopoulou, 2003) 또한 남성 범죄자들에 대한 보도는 정신질환이나 심리적 문제로 인해 폭력을 휘두르게 되었다는 이유를 설명하며 행위를 정당화하고 그 역시 희생자로서 묘사하는 반면, 여성 범죄자들에 대한 묘사는 독점욕이 강하고 비이성적이며, 외도를 하거나 부도덕한 것으로 묘사한다고 지적하였다(김훈순, 2004에서 재인용).

여성이 범죄보도의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인 경우에도 뉴스는 여성을 비난함을 여러 연구는 밝히고 있다. 마틴(Martin, 1976)은 성 관련 뉴스에서의 여성은 많은 경우 희생자임에도 불구하고 일관성 있게 도덕적 비난의 대상으로 제시됨을 지적하였다. 럼과 하이너만(Lull & Hinerman, 1999)은 클린턴과의 혼외정사를 폭로한 제니퍼 플라워즈를 뉴욕타임즈가 어떻게 프레이밍하였는지 분석한 결과, 언론이 나이트클럽 가수였던 제니퍼의 과거 행적을 선정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제니퍼의 진술 자체를 의문시하고, 궁극적으로는 '부적절한 관계'가 아예 일어나지 않았다고 결론지음을 발견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관계를 공중에게 폭로한 제니퍼의 행위가 혼외정사보다 더 나쁘고 비열한 행위인 것으로 비난하였다. 집단 성폭행에 관한 칼(Carll, 2003)의 연구 또한 명백한 피해자인 여성들을 비난하고 사건의 의미를 축소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2000년 6월 11일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벌어진 Puerto Rican Day 퍼레이드에서 발생한 여성 집단 성폭행한 사건에서, 그 현장에 있었던 남성기자들과 경찰은 이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것이다.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직접 시장을 찾아가 항의

하고 나서야 이 사건은 공론화되었는데, 이 사건에 대해 여성 경찰관 대변인은 여성 피해자들이 왜 휴대폰으로 911에 전화하지 않았는지 반문하며 여성들을 질책하였다는 것이다.

도덕적 비난만큼이나 빈번하게 보여지는 뉴스의 양상은 피해 여성들의 주장이나 행동을 일탈적 병리현상으로 프레이밍하는 것이다(양정혜 · 이현주, 2005). 대법관 클레린스 토마스에 대해 성추행 혐의를 제기한 아니타 힐 사건에 대한 보도에서 힐은 과도한 성욕을 가진 여성으로 병리화되어 보도되고 있다. 피스크(Fisk, 1996)에 의하면 사건 당시 뉴스 미디어는 아니타 힐의 성추행 고발은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싱글 여성의 억압되고 충족되지 않은 성욕이 낳은 망상이라는 담론을 지배적으로 생산해 낸 것이다. 실제 성추행의 발생 여부보다는 성추행을 고발한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더 초점을 맞추으로써 미디어는 아니타 힐의 주장을 무시해도 좋을 만한 것으로 주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가정폭력에 대한 미디어 담론과 마찬가지로 가정 밖에서 일어나는 성 관련 범죄에 있어서도 이중적인 성규범이 내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에서는 90년대 중반 이후 여성관련 범죄뉴스에 나타난 젠더 담론을 분석한 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언론의 성범죄 보도 방식을 분석한 유선영(1999)은 1994년부터 1996년까지 2년에 걸쳐 4개의 한국 종합일간지에 실린 강간, 어린이 성적 학대, 성희롱, 성추행, 성추문 등의 성범죄 기사를 병행 검토한 결과, 뉴스가 가해자인 남성보다는 피해자인 '여성의 행실'에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남성 본위의 성도덕을 강요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 여성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은 대체로 무시한 채 가해자인 남성의 행위 자체에만 육하원칙 기사작성법에 따라 초점을 맞추으로써 성범죄를 단순 절도나 강도 사건과 동일화시키거나, 그 반대로 성폭행상황에 대한 상세하고도 그래픽적인 묘사를 제공함으로써 남성 중심의 관음증적 호기심을 유발, 충족시

킨다는 것이다. 김훈순(2004)은 신문 사회면에 성범죄뿐만 아니라 여성이 피해자로 등장하는 여성관련 범죄보도를 프레임 분석하여 젠더담론을 살펴보았다. 김훈순 역시 미디어는 피해 여성의 목소리는 배제하고 공적인 취재원, 특히 경찰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그대로 재생산함으로써 남성의 시선에서 여성 피해자를 타자화시킨다고 지적하였다. 즉, 가해자 중심의 서술, 여성 피해자의 타자화, 남성 필자의 가부장적 시선, 선정적 묘사, 여성의 신체적 취약성과 수동성 강조, 피해자 여성 비난하기 등의 프레임ing 기제를 사용하여 피해 여성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이는 한국 언론에 가부장적인 여성관이 내재된 결과인데, 이러한 결과는 선정성을 강조하는 언론의 상업주의적 태도와 경직된 취재보도체제에서 비롯되며, 특히 남성편향적인 프레임들은 경찰 발표를 그대로 받아쓰는 관행적인 뉴스제작 관습과, 남성기자와 남성적인 뉴스조직의 가치판단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분석하였다. 이진로(2004)는 범죄보도에 관한 연구를 통해 20여명을 연쇄살인 하고도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는 유영철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범죄의 심각성과 무관한 성차별 보도를 하였음을 지적하였다. 언론이 유영철의 살해 대상자를 보도방 여성과 일반 여성으로 구분했고, 살해 동기로 용의자가 말한 성적 방종을 말함으로써, 유영철의 반인간적 범죄를 다분히 부도덕한 여성을 살해한 윤리적 범죄로 왜곡시키고, 피해자 가족의 상처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매매춘관련 텔레비전 뉴스를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 매매춘에 대한 텔레비전 뉴스의 프레임을 분석한 김선남(2002)은 매매춘보도가 사건에 초점을 둘 뿐 심층적인 접근을 결여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뉴스가 매매춘문제를 사회적 관점보다는 개인적 관점에서 문제를 다루어 매매춘을 여성 개개인의 도덕성 문제로 프레임ing 하고 있음을 밝혔다. 즉, 문제의 원인을 개인의 일탈 행위에 귀인시킴으로써 '피해자 비난'에 충

실한 반면, 성을 상품으로 거래하는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에는 침묵을 지킨다고 지적하였다. 해결 방안이 있어서도 경찰 및 행정기관의 노력을 강조함으로써 여성의 재사회화라는 보수적인 처방책에 머무르고 만다고 주장한다. 양정혜와 이현주(2005)는 2004년 9월 시행된 성매매방지특별법을 텔레비전 뉴스가 어떻게 프레임하는지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 나타난 프레임들이 집합적으로 생산하는 성매매의 의미는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가부장적 성본능론에 입각한 성매매담론과 일치함을 밝혀냈다. 즉, 이들 프레임들은 성매매자체를 근절될 수 없는 것으로 전제함으로써 이를 통제하기 위한 각종 제도나 단속 등에 대한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효과를 갖는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의문제기는 성매매 여성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생계위협 프레임에 의해 더욱 강화되면서 가부장적 젠더 질서를 정당화하는데 기여함을 지적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보도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 이경숙(2006)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신문의 보도가 가정폭력사건을 어떻게 의미화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보도는 여전히 개인적인 문제로 프레임하는 경향이 있고, 가정폭력에 대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관련 국내외 범죄보도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언론의 범죄보도가 남성중심적인 시각에서 남성 가해자를 옹호하고 오히려 여성 피해자를 비난하는 보도양상을 보임으로써 젠더에 따라 달리 프레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성관련 범죄보도에 이중적 성담론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상적으로 사회구조적 문제보다는 개인적 문제로 프레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합하면, 국내에서 젠더의 관점에서 범죄보도를 조명하는 연구는 수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신문의 성범죄 뉴스 또는 텔레비전 매체출판 관련 뉴스와 같은 특정 주제에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여성대상 범죄보도에서 여성이미지를 형성하는 장치들

여성대상 범죄보도에서 여성이미지를 형성하는 장치들의 분석은 유선영(1999)과 김훈순(2004)이 수행한 기존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리하였다.

가부장적 시선: 김훈순(2004)에 의하면, 여성관련 범죄를 보도할 때 남성중심적인 가치관이 내포되어 있는 용어를 자주 사용한다고 한다. 특히 성범죄 관련 보도에서 피해자를 기술할 때 ‘육을 보여’, ‘몸 뺏겨’라는 용어가 종종 사용되는데 ‘육’이라는 용어 자체가 여성이 강간의 피해자가 됨으로 인해 더럽힘을 당했다는 의미를 함축하며, ‘뺏겨’는 여성을 수동적인 존재로 묘사함과 동시에 중요한 것을 잃었다는 등 가부장적인 순결 이데올로기를 함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이러한 용어들은 가치중립적인 것이 아닌 남성적 가치관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여성 피해자 타자 만들기(가해자 중심의 서술 및 여성 피해자의 타자화): 범죄기사는 매우 짧고 간결한 것을 원칙으로 하는 5W1H 육하원칙에 입각한 기사 서술방식으로 작성됨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을 없애고 기본만 다루게 된다. 그러다보니 뉴스는 범죄행위를 한 가해자의 행위 중심으로 서술하면서 피해자의 입장이나 상황은 무시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뉴스의 주체는 가해자가 되고 여성 피해자는 익명의 대상자로만 등장한다는 것이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변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이름을 익명으로 사용하지만 이것은 곧 여성 피해자를 존재하지 않는 대상으로 축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뉴스 속 가해자는 엄청난 힘을 가진 존재로, 피해자는 수동적이며 무력한 존재로 그려지고 사건 속에서 철저히 타자화된다(유선영, 1999).

여성 피해자 비난하기: 뉴스가 남성중심적 시각에서 남성 가해자는

옹호하고 오히려 여성 피해자를 비난한다는 것이다. 90년대 후반부터 문제가 되어온 원조교제는 성인 어른이 청소년에게 성을 사고 금품을 대가로 제공하는 것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원조교제에서 비난받아야 할 대상은 청소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린 여성의 성을 매매의 대상으로 삼는 성인 남성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원조교제 기사들은 어린 여학생들을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김훈순(2004)에 의하면, “용돈 궁하면 원조교제”(조선, 2001.2.23) 기사에서 실제로 비난받아야 할 대상은 과외를 미끼로 성매매를 자행한 성인 남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기사는 유혹에 넘어가 이들과 원조교제를 한 청소년을 비난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이다. 원조교제를 어른의 문제가 아닌 청소년의 문제로 프레임한 것이다.

약자로서 여성피해자 강조하기: 언론에서는 가부장적인 사회 내의 문제로 인해 성범죄가 유지되고, 은폐되고 있는 사실은 간과하고 오로지 여성의 취약성만을 강조하고 여성이 범행 대상이 되기 쉽다는 점이 강조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범죄자는 여성들이 쉽게 굴복할 것이라 기대하며 여성을 공격하고, 피해 여성 역시 극도의 공포에 압도되어 공격에 대한 대응조치 시도하기 어렵게 한다. 여성의 신체적 취약함과 무기력은 생물학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해 구성되어진다. 부모의 양육태도에서, 공공기관의 교육에서, 연약하고 의존적인 여성 신체가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미디어를 통해 여성의 신체적 취약함에 대한 인식은 강화되어 나간다. 미디어에서 여성을 계속 성적 대상으로 묘사함으로써 여성성에 대한 문화적 이상형에 맞추기 위해 조장되는 여성의 특성(아름다움, 성적 매력, 수동성, 무력함)은 결국 여성을 대상화하고 비하하고 심지어 범죄의 대상이 되게 하는데 기여한다(Wood, 2006). 또한 공포 영화, 특히 잔혹 폭력물은 여성을 비참하게 무력한 수동적인 희생자로 그린다(Clover, 1995).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 성폭력에 대한 여성들의 공포와 무기력감을 만들어낸다(오마이뉴스, 2009. 2. 5.).

선정성 강조하기: 유명철사건을 보도한 방송3사의 뉴스를 분석한 엄민우(2004)는 카메라를 마치 몰래카메라처럼 발굴 작업 현장에 고정해 놓고 실시간으로 중계해주는 것이나, “토막난 시체가 쏟아져 나오는...”, “이곳에서 성관계를 갖은 뒤 화장실에서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잘라...”, “숨진 안씨의 손목을 잘라버리고 바다에 던지고 차에 불을 질러...” 등 자극적인 표현을 서슴치 않고 사용하는 것은 시청자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함으로써 시청률을 올리려는 선정적인 요소임을 지적하였다. 즉, 뉴스미디어는 범죄뉴스에 대해서도 호색적이고 관음적인 시각으로 보도한다는 것이다. 성범죄보도의 경우, 성폭행의 과정과 횡수, 정황에 대한 묘사가 본 사건을 문제로 부각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사건을 선정화시켜 읽을거리로 만들고 독자들의 가학적인 관음성을 부추킨다는 것이다(유선영, 1999).

이러한 장치들을 사용하여 뉴스는 남성 가해자보다는 여성 피해자를 비난하고, 범죄대상의 약자로서 여성을 부각시키며, 나아가 사건의 본질을 오도하는 선정성을 강조한다.

4. 뉴스 보도의 젠더담론을 파악하는 도구로서의 프레이밍 분석

뉴스를 바라보는 시선은 뉴스를 이미 외부에 존재하는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반영으로 간주하는 ‘현실반영론’과 뉴스를 뉴스제작자에 의하여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는 ‘현실구성론’으로 나누어진다. 현실반영론은 뉴스를 현실을 묘사하는 거울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사실 그 자체의 반영물로 파악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뉴스는

‘일어난 사건에 대한 보도’가 아니라 ‘일어난 사건’ 그 자체인 것이다. 그러나 현실반영론에 의하면, 뉴스는 단순히 현실을 묘사하는 거울의 역할을 담당하기보다는 주어진 현실을 특정 방식으로 구성하는 행위이다(김선남, 2003). 뉴스에 대한 많은 선행 연구들은 뉴스가 외부세계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뉴스제작자의 선택과 배제, 강조와 해석 등을 통하여 재구성된 현실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Gitlin, 1980; Tuchman, 1978). 즉 뉴스는 현실을 특정한 방식으로 선택, 강조하여 제시함으로써 현실을 일정한 틀 안에서 제시하게 되며, 수용자는 이렇게 틀지어진 현실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다.

터크만(Tuchman, 1978)은 뉴스를 ‘세상을 향하여 나있는 창’에 비유하면서 선택과 배제를 통하여 사회적 현실을 구성해낸다고 강조하였다. 즉, ‘사실성의 망’이라고 불리는 뉴스과정의 프레임을 통하여 특정한 주제나 조직 및 집단을 집중적으로 조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기틀린(Gitlin, 1980) 또한 뉴스 보도는 일정한 틀에 갇혀 있는 것으로서 일정한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60년대 신좌익 운동에 대한 언론 보도를 연구한 기틀린은 뉴스가 신좌익 운동을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위협집단으로 프레임 함으로써 현상유지적 담론을 구성하여 신좌익운동을 배제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소련의 대한항공 KAL기 격추사건과 미국의 이란기 격추사건에 관한 미디어 보도 양식을 비교한 엔트만(Entman, 1991)은 사건의 특징에 따라 유사한 현실이 서로 다른 담론으로 제시됨을 밝혔다.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은 민간인 희생자를 부각시켜 소련에 대한 국제적 비난 여론을 조성한 반면, 미국의 이란기 격추사건은 단순한 기술적 실수였음을 부각시켜 자국을 옹호하는 프레임을 나타내고 있었다. 엔트만에 의하면, 뉴스 프레임은 현실의 어떤 측면은 강조하는 반면, 다른 측면들은 생략하거나 주변화시킴으로써 현실에 대한 일정한 방향의 해석이 이루

어지도록 유도하는 의미 생산의 도구인 것이다. 즉, 하나의 현상이나 쟁점은 다중적 의미를 가지며 다양한 시각에서 조명되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스 프레이밍에 의해 선택과 강조, 배제 등의 과정을 통해 의미의 다양성을 억압하고 단일 의미를 생산하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미디어 프레이밍은 공중의 담론을 조직하는 상징과 주제들에 대한 일련의 표현과 해석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는 프레이밍 개념을 처음으로 소개한 거프만(Goffman, 1974)의 정의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즉 그는 '개인들로 하여금 사건들 혹은 생활 경험들을 위치 지우고, 지각하고, 파악하고, 또한 명명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해석 기제(p.21)라고 정의를 내렸다. 따라서 미디어 프레이밍은 사회 현실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이슈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제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엔트만(Entman, 1993)은 현실의 몇 가지 관점들이 선택되고 보다 유의미하게 되어가는 과정으로 미디어 프레이밍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 따라서 프레이밍이 주는 의미는 중요한 문제의 한계를 정하는 한편, 그 주요 요소들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하나의 '틀'로 더 잘 이해될 수 있다(Tankard, et al., 1991; Hallahan, 1999). 매스 미디어는 현실 이미지에 대한 프레이밍을 제공함으로써 공중에게 강력한 지각효과를 미칠 수 있는 것이다(한균태·송기인, 2005).

따라서 뉴스가 현실을 재구성하고 의미를 부여하는데 있어서 동원되는 기제인 뉴스 프레이밍에 대한 분석은 특정 이데올로기를 발견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이는 심층적으로 뉴스보도를 분석함으로써 텍스트나 화면에 담겨있는 이데올로기를 발견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분석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기존의 양적 내용분석 방법이 갖는 한계를 보완해 줄 뿐만 아니라 양적인 연구방법을 통하여 이데올로기를 연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주기도 한다(김선남, 2002; 반현, 2001; 이준웅, 2001). 즉 우리에게 인식된 현실 속에서 몇 가지 측면을 선택

하고 그것을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현저하게 두드러지게 함으로써 같은 이슈라 할지라도 특정한 맥락과 관점에 따라 전체적인 뉴스의 전개가 달라지며 해석과 뉴스 프레임도 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뉴스의 프레임링 과정을 밝혀내는 작업을 통해 뉴스가 뉴스 조직의 규범과 제작자들의 인식 속에 내면화된 이데올로기에 따라 취사·편집되어 특정한 현실을 구성해냄을 드러낼 수 있다(김훈순, 2004).

그동안 프레임 연구에서 발견된 결과들은 대부분의 뉴스 프레임이 주류 권력집단의 이해관계에 부합하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 엘리아슈(Eliasoph, 1988)은 기자들의 일반적인 취재관행은 새로운 시각의 보도 대신 정치적, 경제적으로 그 사회의 주류를 형성하는 지배계층의 의견을 인용, 부각시킴으로써 뉴스를 지배계층의 시각에 맞춰 보도하게끔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결국 주류의 시각만이 부각될 뿐 여성 등의 사회적 약자는 공적 담론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김훈순, 2004에서 재인용).

뉴스 프레임의 분석은 형식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사건을 전달하는 텍스트의 형식은 그 텍스트가 의미를 구성하는 방식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내용과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하다(Iyenger & Kinder, 1987). 이들 텍스트가 구성되는 형식은 사건 중심 프레임과 이슈 중심 프레임으로 나눌 수 있다. 아이엔가와 시몬(Iyengar & Simon, 1993)은 뉴스 프레임의 형식을 에피소드식 프레임과 주제진술식 프레임으로 나누어 그 틀을 제공한 바 있다. 에피소드식 프레임은 특정 사건을 중심으로 공적 이슈를 틀짓는 보도방식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현장의 인터뷰를 통하여 극적인 요소, 시각적인 요소, 묘사적인 요소를 강조한다. 반면, 주제 진술식 프레임은 이슈를 사회문화적 배경, 역사적 배경 등 다양한 사회구조적 맥락과의 관계에 중점을 두어 보도하는 틀로써 보다 해석적이고 평가적이며 심층분석으

로 구조화되어 있다. 김훈순(1998)과 양정혜(2001) 등은 이들을 사건 중심 프레임과 이슈 중심 프레임으로 재명명하고, 다음과 같은 분류기준을 제시하였다. 사건 중심 프레임은 무엇이 일어났는가, 혹은 누가 무엇을 말했는가에 중점을 두어 사실의 나열에 그치는 텍스트 구성 방식을 지칭한다. 반면에 이슈 중심 프레임은 왜 발생했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해결책은 무엇인가 등 다루어지고 있는 문제의 근본 원인이나 해결방안에 초점을 맞추는 텍스트 구성방식을 지칭한다.

텍스트 내부의 의미 생산 기제들에 대하여, 맥콤과 가넴(2001)은 뉴스 프레임을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첫 번째 방식은 사건이나 이슈를 설명하는 상징들(예를 들어 메타포나 사례와 같은 수사학적 도구, 빈번하게 사용되는 단어나 어구 등)을 찾아내어 분석하는 것으로, 상징적인 의미 분석에 유용한 방식이다. 그러나 상징이 충분히 사용되지 않은 텍스트를 분석하게 될 경우에는 분석 자체가 불가능해 진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뉴스 메시지의 핵심적인 주제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텍스트 전체의 의미분석에 유용하다. 그러나 하나의 텍스트가 다중적인 주제를 포함하고 있을 때 어느 주제에 비중을 둘 것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듯 두 가지 방식 모두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나, 맥콤과 가넴은 프레임분석이 핵심적 주제 찾기에 더 주력하는 것이 개념적으로나 실증적으로 더 유용하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상징분석의 경우 연구자의 주관에 근거한 인상주의적 해석의 성격을 떨 수 있기 때문이다(양정혜·이현주, 2005에서 재인용).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여성대상 범죄뉴스 보도에 대한 문헌 고찰을 통해 여성대

상 범죄뉴스에 젠더편향적인 시선이 내재해 있는지, 어떠한 장치들을 통해 남성우월주의적 이데올로기를 발현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처럼 뉴스에 내재된 젠더 담론을 분석해 내는 방법으로 프레이밍 연구가 갖는 특·장점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여성 대상 범죄뉴스에 대한 기존 논의들을 고찰한 결과, 언론의 여성 관련 범죄보도가 남성중심적인 시각에서 남성 가해자를 옹호하고 오히려 여성 피해자를 비난하는 보도양상을 보임으로써 젠더에 따라 달리 프레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성관련 범죄보도에 이중적 성담론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뉴스는 성차별적인 장치를 통해 남성중심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뉴스 텍스트 속에 내재한 권력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방법인 프레임분석을 통해 뉴스를 분석한 결과들을 살펴본 결과, 일상적으로 사회구조적 문제보다는 한 개인의 일탈에 의한 또는 한 개인의 비정상성에 기인한 개인적 문제로 프레이밍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남성중심적인 이데올로기는 여성을 주 희생자로 하는 연쇄살인사건에서도 크게 다르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 등의 연쇄살인 사건에 대해 언론은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으며 여러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한 범인을 ‘사이코패스’라는 프레임으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페미니스트 권김현영은 “사실 사이코패스라는 말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과 동의어다... 사이코패스는 윤리적 감정 이입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하는데, 개념적 완결성이 없는 말이다. 연쇄살인이 벌어지고 범인이 너무나 머리가 좋으면 편집증이라 하고, 혹은 주변 사람들과 사이가 나쁘면 히스테리 환자라 한다. 그리고 두 얼굴의 사나이면 이중인격자라고 하고... 사실 이게 아무 의미 없다. 그럼에도 사이코패스라며 개인의 문제로 돌리려 하는 건 사회적 불안이 반영된 결과다”라고 말했다. 사이코패스가 무언

가를 설명해줄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성적 욕망의 극치를 살해로 마무리한 강호순을 사이코패스라는 개인 심리적 결함으로만 바라보고 이를 기른 우리 사회의 병리 현상을 성찰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허성우(2009)는 “그(강호순)와 같은 남성 가해자들을 성적 욕망의 극치를 살해로 마무리하는 극단적 남근숭배주의 감염자들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 남근숭배주의가 광범하게 작동하는 사회적 조건을 분석하고 처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즉, 이들 연쇄살인 사건들을 남성중심적인 이데올로기의 극단적인 발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인데, 과연 이 사건들에 대한 보도가 이러한 부분을 잘 짚어내고 있는지 궁금하다. 기존 논의들을 토대로 하면 연쇄살인과 같은 극악무도한 범죄 보도에서도 남성중심적인 이데올로기가 배제되어 있다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연쇄살인과 같이 여성을 주 희생자로 하는 범죄 보도를 실제로 분석해봄으로써 이를 실증적으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원고접수: 2009. 5. 20 게재확정: 2009. 6. 8)

참고문헌

- 김선남(2003), “텔레비전 뉴스와 여성”, 한은경·이동후 (공편), 『미디어의 성과 상』, 나남, 241-264쪽.
- _____(2002), “매매춘 관련 TV 뉴스의 프레임 분석”, 『한국방송학보』, 16(2), 41-76쪽.
- 김훈순(2004), “한국 언론의 젠더 프레임”, 『한국언론정보학보』, 27호, 63-91쪽.
- _____(1997), “텔레비전 뉴스 속의 성의 역학”, 『한국방송학보』 제9호

(가을), 147-178쪽.

반현(2001), “텔레비전 뉴스 프레임: 뉴욕 테러 사건의 국내 TV 뉴스보
도 사례”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1-8쪽.

양정혜(2002), “대중매체와 여성 정치인의 재현: 시사 월간지와 여성 월
간지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6(2), 452-484쪽.

양정혜 · 이현주(2005), “텔레비전 뉴스와 젠더 질서”, 『한국방송학보』,
19(2), 378-418쪽.

오마이뉴스(2009.02.13), “민노총 성폭력·연쇄살인 공통점? 사이코패스
보다 무서운 건 여성을 보는 시선”.

_____ (2009.02.05), “익숙한 ‘성폭력에 대한 공포’를 질문하자”.

유선영(1999), “성범죄가 구성하는 여성 신화”, 『대중매체와 성의 정치
학』, 95-143쪽, 나남출판사.

이경숙(2006), “가정폭력 보도의 틀짓기 분석: 연예인 가정폭력 사건 보
도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0(1), 211-248쪽.

이진로(2004), “한국 언론의 범죄보도에 관한 연구: 연쇄살인 범죄 용의
자 유아무개 사례 분석”,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정재철(2001), “미국 대테러 전쟁에 관한 텔레비전 뉴스 프레임 분석:
KBS 9시 뉴스를 중심으로” 『방송문화연구』 제13권, 257-278쪽.

한균태 · 송기인(2005), “국내 신문의 환경 이슈 보도에 대한 프레임
연구”, 『한국방송학보』, 19(3), 288-324쪽.

Carll, E.K. (1999), *Violence in Our Lives: Impact on Workplace,
Home and Community*. Boston: Allyn & Bacon.

_____ (2003), “News Portrayal of Violence and Women:
Implications for Public Polic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6(12), pp.1601-1610.

Entman, R.(1993), “Framing: Toward Clarifications of a Fractures

-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43, pp.51-58.
- Finn, G. (1989~90), “Taking Gender into Account in the ‘Theater of Terror’ Violence, Media and the Maintenance of Male domination”, *Canadian Journal of Women and the Law*, 3(2), pp.375-394.
- Fisk, J.(1996), *Media Matters: Race and Gender in U.S. Politic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Gamson, W. (1992), *Talking Politics*. Cambridge: University of Cambridge Press
- Gitlin, T. (1980), *The Whole World is Watching: Mass Media in the Making and Unmaking of the New Left*. L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artley, J. (1982), *Understanding News*, London: Methuen.
- Iyenger, S. & D. Kinder(1987), *News That Matters: Television and American Opin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cComb, M. & S. Ghanem(2001), “The Convergence of Agenda Setting and Framing.” In S. Reese, O. Gandy & A. Grant (Eds.), *Framing Public Life*. London: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Rakow, L. F. & Kranich, K.(1991), “텔레비전 뉴스에 나타난 여성기호”. 김명혜 외(편)(1994), 『성·미디어·문화』, 나남출판사, 155-177쪽.
- Tuchman, G.(1978), *Making News: A Study in the Construction of Reality*. 박홍수(역) (1995), 『메이킹뉴스』, 나남.
- Wood, Julia T. (2006), *Gendered Lives: Communication, Gender & Cultur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Chapel Hill. 한희정(역). 『젠더에 관한 삶: 젠더, 문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북스.

<Abstract>

A Study on Crime News about Women

Hyun-ju Choi

This study examined the way dealt with women in the crime news. The assumption of this paper is that news reporting is not to reflex reality, but to construct reality through the selection and exclusion of news in the process of news making. Thus, news produces and reproduces a specific dominant ideology. In the perspective of gender, news is assumed to reproduce the male-oriented perspectives. Based on the scrutinized investigation of the articles on this issue, this study reveals that crime news reporting also produces the gender discourse based on male-centric perspective and patriarchal ideology by the blaming women who are victims of crimes.